외국인 순매수, 지속 가능한가

2022/ 10/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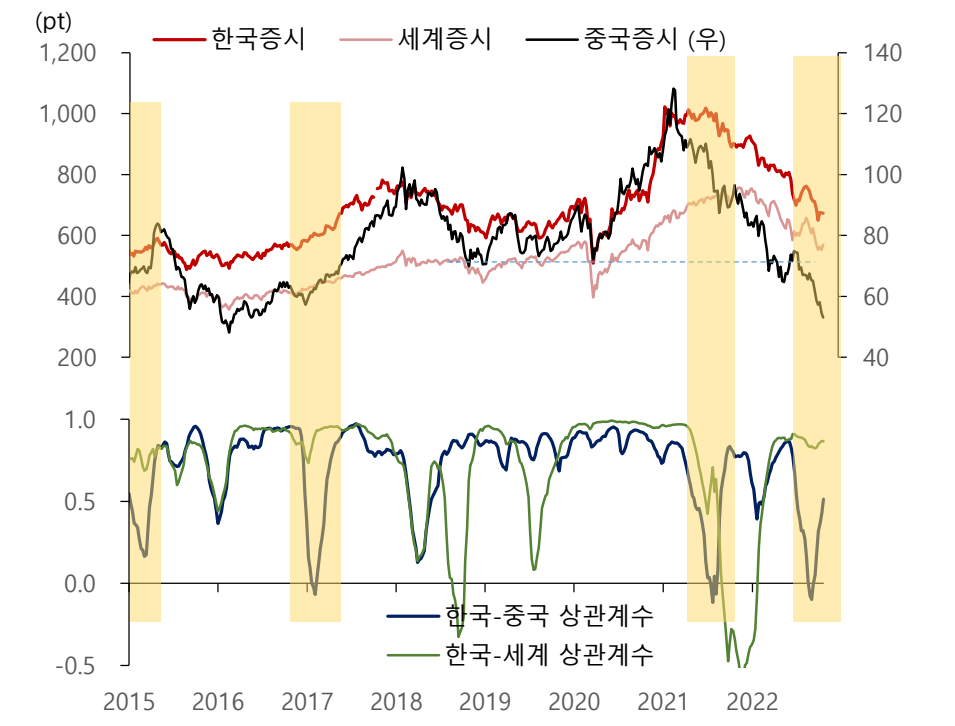
Strategist
곽병열
(2009-7148)
brkwak@leading.co.kr

■ 글로벌 증시구도로 살펴보는 외국인 순매수의 지속성

올 하반기부터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 중(5.2 조원)인데, 글로벌 증시구도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고자 함.

먼저 최근 중국 증시와의 주가 탈동조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국과 중국 간의 밀접한 교역규모를 감안하여 한국 금융시장을 중국에 대한 대용 수단(proxy)으로 간주하던 외국인 투자자의 기존 매매행태와는 차별화된 점이 수급변수에 반영 중임. 미 중간선거 국면 이전 자국 산업보호의 강화 수단이 된 인플레이션방지법(IRA)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상반된 영향, 중국 당대회 이전 코로나 봉쇄조치에 따른 경기위축 등으로 판단함

<그림 1> 중국증시와의 탈동조화 국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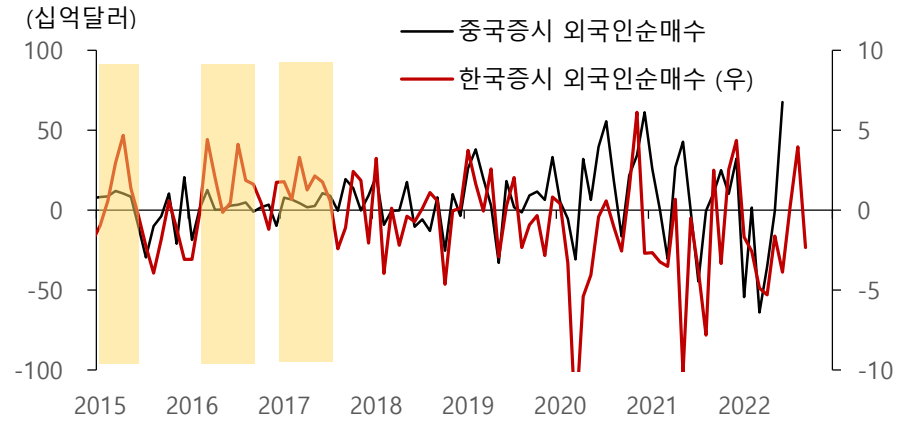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주: MSCI 기준임

양국은 MSCI 신흥국지수의 핵심 국가로서 패시브 추종자금의 영향을 함께 받으나, 미 연준의 고강도 긴축에 따른 달러강세로 인한 글로벌 펀드플로우의 위축 국면임. 따라서 최근 한국증시로 유입된 외국인자금은 신흥국 전체에 대한 배분 성격보다는 한국 만의 차별화된 핵심주력 기업에 대한 저가매수 성격의 스마트머니(smart money)일 것으로 추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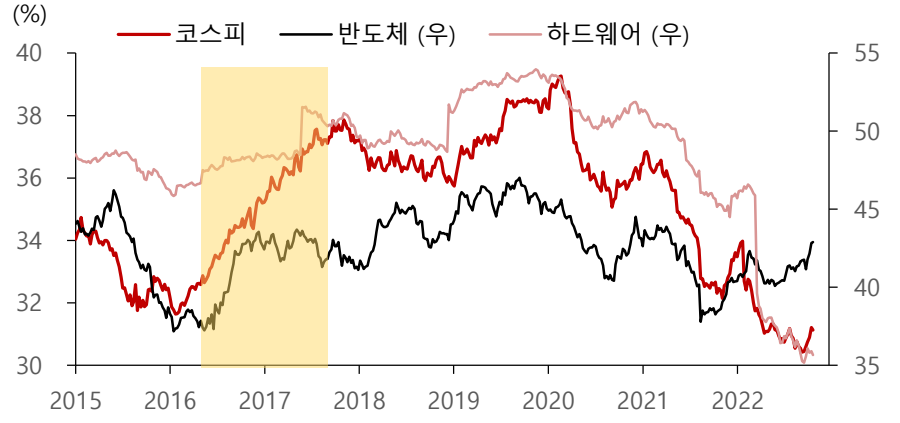
대표적으로 중국 그림자금융 악재로 부진했던 2015~2016 년의 경우 한국증시는 외국인 투자자의 상대적인 선호현상을 보였음. 즉 중국 내부악재에 대한 피난처 및 대체재로서 한국증시는 일부 기능한 바 있음. 또한 반도체 경기 회복기에 진입했던 2016~2017 년의 경우 국내 반도체(SK 하이닉스) 및 하드웨어(삼성전자, LG 엔솔) 업종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IT 경기 회복 초기에도 차별화된 외국인 반응을 이끄는 것으로 해석함

<그림 2> 한국과 중국증시의 월간 외국인순매수 추이



자료: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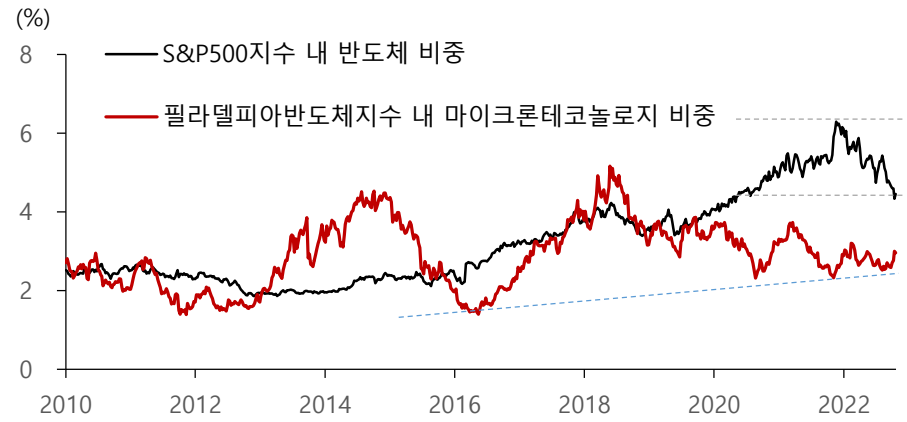
<그림 3> 한국증시의 외국인 지분율 추이



자료: Dataguide, 리딩투자증권

북미계 외국인투자자는 글로벌 하우스뷰에 따른 섹터비중 조정의 영향이 국내 IT 대표주에 대해서도 투영될 것임. 국내 IT 업종의 외국인 지분율이 역사적 저점에서 바닥탈출(Bottom out) 시도 중인 것과 유사하게 미국 증시 내 반도체(마이크론테크놀로지) 비중 역시 3 년래 저점수준에서 바닥탈출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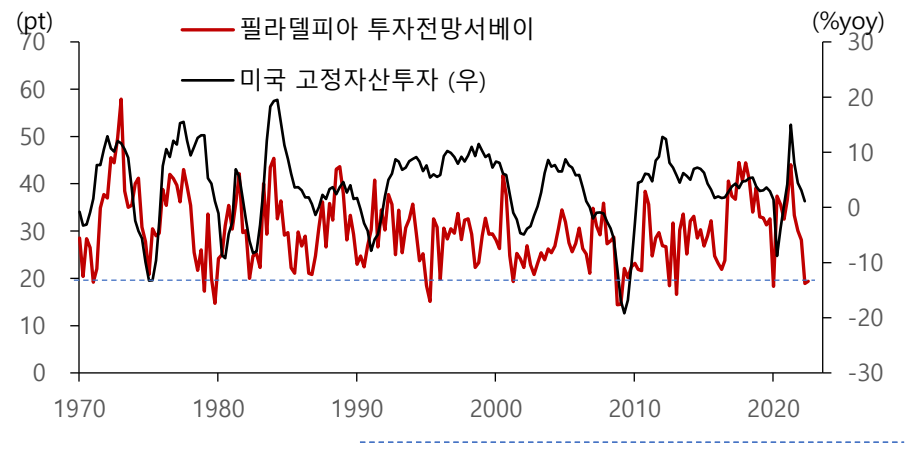
<그림 4> 미국 증시 내 반도체 및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비중 추이



자료: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주: 시가총액 기준 비중임

미국 투자사이클의 선행지표인 투자전망 서베이는 역사적 저점수준이며, 동행지표(고정자산투자) 역시 하향세라는 점에서 글로벌 IT 는 과잉투자 위험이 크지 않은 점도 향후 자산효율을 높여줄 요인으로 파악함

<그림 5> 미국 투자사이클 상 과잉투자 우려 제한적



자료: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 결 론

▷ 중국 당대회 및 미국 중간선거 등으로 불거진 중국악재 속에 한국은 대체재 역할 가능할 것임

: 과거 한-중 증시 외국인순매수는 중국 그림자금융, 한국 반도체 경기회복에 대체재 역할 강화

▷ 국내 반도체 및 하드웨어 업종의 외국인 보유율은 역사적 저점에서 Bottom out

: 미국증시 내 반도체(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비중 추이도 유사한 양상

▷ 글로벌 재고 및 투자순환 상 바닥국면으로 레벨상 바닥탈출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IT 경기에는 긍정적이며, 외국인 순매수의 지속성을 높여줄 것으로 판단함

▶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를 작성한 금융투자분석사는 동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에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작성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것이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무단복제, 변형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